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함께 정하고 지키는 남북평화통일기도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레포츠 동호회에서는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 샘터(개척자들)에서 열립니다.

김현근 씨와 유혜인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8월 16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창 37:1~4 / 시 105:1~6, 16~22 롬 10:5~15 / 마 14:22~33

왕상12:6-16

오늘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김필순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훈동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커 피 대 접 : 최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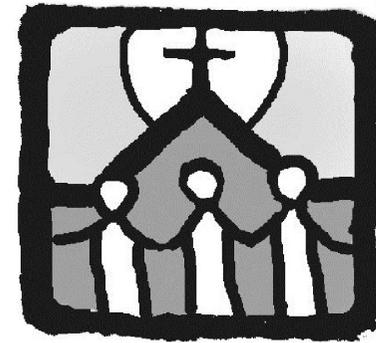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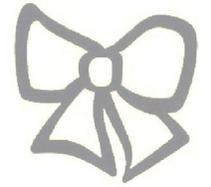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여름 중에도 가을을 꿈꾸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쉽게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점과 고통을 직시하되, 더 나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회 곳곳에서 끔찍한 폭력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사회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방향과 토대를 깊이 반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권미정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애순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김중수	이순정	김철수	유영남	김혜영	노성희
김만균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상규	박시내	박옥식	방민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원금	송형운	하미림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원용일	최현선	윤영미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혁순
이우상	이계월	이윤석	박안수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재삼
전정련	이호원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정연희	정종삼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주은경	차혜심	노미향	한기택				

감사헌금

곽권희	김명순	이교영	김명희	김태정	문복순	아동부	유청빈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정은	정영우	김지운	조혜윤	주명재	한성자	최희정

무명4

생일감사헌금

이승지 이진선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박호규 강영님 무명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쉽	쉽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흰둥이 생각

- 손택수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쓰옥, 쓱 훑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꼭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훑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훑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품이 넓은 분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뒤에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언제나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사십시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갖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품어주신 주님이, ‘그’도 품어 주셨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정민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이용현 선생 유건형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조문규 황현성 임영선 진정숙 이오복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201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며 광복절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한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북/북남 교회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의 언약이며,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 증오와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이신 주님!

우리 민족이 분단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화해와 평화의 길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 분단의 장벽이 다시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통하는 경제협력의 문은 위축되었고, 금강산으로 이어지던 화해의 길도 언제 다시 개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 길, 뱃길 그리고 철길이 다 막혀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 현실의 악몽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에 맞서며 평화통일의 길을 다시 열어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기나긴 고통의 현실을 돌아볼 때,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신뢰를 기초로 군사적, 정치적 빚장을 열어가는 것이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진실한 방법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엡 2:14).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휴전협정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불의와 어두

움의 세력을 깨치시고, 우리 모두 섬김과 나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강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약탈과 지배와 죽음의 군사문화를 종식시키고, 사랑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세우게 하소서. 불의한 지배자들을 돌이켜 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을 참회하게 하시고, 착취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려 주고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를 통해 세계 345개 교회와 5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행동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남북/북남의 교회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다시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멀지 않은 그 날, 바로 이 땅에서 제2의 해방인 통일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